영어어문교육 *제20권* 3호 2014년 가을

진 리스『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탈식민주의 연구: 등장인물 중심으로

이 현 지*
(Kongju National University)
강 문 구**
(Kongju National University)

Lee, Hyunji & Kang, Munkoo. (2014). A study of post-colonialism in *Wide Sargasso Sea*: Focusing on character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0*(3), 341-3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t-colonialism in Jean Rhys's *Wide Sargasso Sea*, focusing on characters. Using literary materials as resources for English learning can be a genuine tool for the students to learn English not only speaking and writing competence but understanding cultural background knowledge. This novel is a creative response to Charlotte Bronte's *Jane Eyre* which has been one of the most popular love stories. Bronte and Rhys composed their novel in different centuries and came from different backgrounds. In *Jane Eyre*, Bronte describes Bertha as a crazy Creole woman. Rochester distorts Bertha for his purpose, which reflects the colonial ideology of nineteenth century of England. Describing Bertha, Bronte defines "others" in madness and shows European superiority and desire for domination. Hence, Rhys gave Bertha a new name, Antoinette, by giving her voice in her novel and showed that her death is not a tragic defeat. Through this analysis, teachers have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novel in various ways including Post-colonialism. If we add teacher's efforts to the careful application of the curriculum, teaching culture through English literary works will enhance its effectivenes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ide Sargasso Sea/Post-colonialism/Teaching culture,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탈식민주의/문화 교육(지도)]

* 주저자 ** 교신저자

Ⅰ. 서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는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의사소통과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사회와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영어교육에서 힘써야 하는 핵심 능력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361호)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및 세계시민의식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문화' 이해를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문화 학습을 강조하고 '문화' 요소를 부각시킨 것은, 언어를 도구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문화에 접근함으로써 학습자의 개인적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적응력과 소양을 기르는 것이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문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강용구 & 김종선, 2002).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 영어 즉, '언어'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문화 역시 언어의 일부분으로써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영어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문화와는 사뭇 다른 영어권의 문화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은 여러 교육적 현실 문제로 인하여 언어의 기능적, 수단적인 측면만을 중시하고 상대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가 영어라는 언어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영미문화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야 하며, 그 일환으로 영어수업에서 영미문화 항목에 대한 흥미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영어를 지식이 아니라 타 문화 이해의 수단이라는 의식을 자각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노력해야 한다(한호 & 김현옥, 2007).

문화교육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공간적 제약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다른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등 교육의 공교육에서는 교과서의 내용 및 소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영미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한호 & 김현옥, 2007).

교사들이 교사의 특성을 살려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재료는 아마도 문학작품 일 것이다. 문학작품은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의식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재현하기 마련이다. 작가는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재형성하여 드러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에게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문학을 이해한다

는 것은 곧 문학이 그 일부를 이루는 사회적 과정과 사회의식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관심사는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이후, 독립을 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제국주의의 잔재를 탐색해서 그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극복하자는 탈식민주의가 문학작품과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데 있다. 특히 식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현재 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문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탈식민주의를 담고 있는 작품에 인물 중심으로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 탈식민주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탈식민주의가 작품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탈식민주의를 담은 문학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영국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꼽히며, 영어교육에서 문학 교수 자원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작품인 샬롯 브론테(Charlotte Bronte)의『제인 에어』(*Jane Eyre)(1852)*를 되받아 쓴 작품, 진 리스(Jean Rhys)의『광막한 사르가소 바다』(*Wide Sargasso Sea)(1966)*를 주인공들의 대화, 현실 묘사, 생각들을 통하여 인물중심으로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탈식민주의 이론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과거 서구의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서구 식민체제가 지배하던 식민 시대와 그 다음 시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말이다. '다음'(after) 또는 '넘어선'(beyond)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 'post'를 식민주의 앞에 붙임으로써 여러 지역에 오랫동안 계속 되어왔던 식민 역사가 종식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고부응, 2005). 식민주의가 주로 지리적 식민지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면, 탈식민주의는 문화적·정신적 식민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식민 시기와 독립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국주의 지배의 잔재를 자각하고 그것에 대항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염부섭, 1999).

단순히 동양학을 의미하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단어를 '동양에 대한 서구의 왜곡과 편견'을 의미하는 이론으로 탈바꿈시킨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의『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978)은 탈식민주의 비평을 연 중요한 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사이드는 "동양은 유럽이 스스로의 대조적인 이미지, 관념, 개성, 경험을 갖는 존재로

자신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어왔다(Said, 1978, pp. 1-2).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p. 12).”라고 서술한다. 이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면서 유럽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여 여기는 개념으로 서구(유럽)적인 것은 우월하고 비서구적인 것은 열등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유럽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는 것이다. 서구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두뇌나 신체 면에서 열등하고, 무능하고, 게으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쇠퇴하고 비참한 동양을 서양이 식민지화 함으로써 무지에서 구출해 냈다(p. 172)고 여기며 자신들의 식민지화를 정당화 한다.

『오리엔탈리즘』이후 빌 애시크로포트(Bill Ashcroft), 가레스 그리피스(Gareth Griffiths), 헬렌 티핀(Helen Tiffin)의 공저『제국의 되받아 쓰기』(*The Empire Writes Back*)(1989)의 영향으로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국가들이 지배 언어였던 영어를 통해 제국의 중심을 향해 되받아친다는 의미로 탈식민주의적 글쓰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책의 저자인 세 명의 호주 영어교육학자들은 피지배 국가에서는 그들의 다양한 탈식민화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상황에 맞도록 지배언어인 영어를 전유(專有)한 것을 ‘소문자 영어(english)’라고 표현하였다. 피지배 국가의 작가들은 정통 영문학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문자영어를 사용하여 제국의 정전 작품들을 패러디하고 해체하는 ‘되받아 쓰기’ 작품을 내놓는다(윤교찬 & 이동배, 2011).

영문학의 고전들은 대부분 식민주의의 종주국인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문학작품들이며, 전통적으로 영문학의 연구와 교육은 식민주의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이루어져 왔다. 영문학의 고전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도덕적·윤리적 가치와 규범을 가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할 수 있는 학습 도구이다.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연중에 작품에 내재된 것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영문학 공부는 서구의 도덕적 가치 모델을 연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학은 도덕적 행위와 지배 국가의 가치 행위가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했으며, 결국 피지배국가에서 학습에 사용되었던 영문학 작품은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상태의 대리 영국인 역할’을 했다. 이런 까닭으로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그들이 배웠던 고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당연하게 배웠던 고전 문학 작품과 생산적인 비평적 대화를 하기 시작 했다. 문학이 쓰여진 때의 주요한 문제들, 논쟁과 지식, 그리고 사람들이 과거 자신들의 현실을 파악했던 다양하고 대조적인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맥락(context)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문학 작품을 맥락에 비추어 읽었는데, 그런 맥락이 문학 작품에 존재하는지 밝히고, 그 자체가 당시의 논쟁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리고 세계의 지배적 견해에 어떻게 동의하고 거부하는지를 밝히기 시작했다.

2.『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연구

1) '되받아쓰기 전략':『제인 에어』를 되받아 쓴『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제인 에어』는 지금도 영국 소설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초의 여성 성장 소설로 볼 수 있다. 글이 쓰여진 19세기 영국은 샬롯 브론테가 당시 영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의식하여 초판을 출판할 때 커러 벨(Currer Bell)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을 정도로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었다.『제인 에어』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아로 외롭게 자란 주인공 소녀 제인이 당당한 여성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까지의 시련과 극복, 사랑의 성취 과정을 그려냈다. 여성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결정되고, 결혼으로 완성되며, 가정과 남성에게 헌신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제인은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고 저항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 간다. 반면 제인과 제인이 사랑하는 로체스터와의 사이에 방해물로 묘사되고 있는 로체스터의 전부인 버싸(Bertha)는 '다락방의 광녀'로 등장하며 인간과 짐승 사이의 무엇으로 묘사되어 19세기 영국사회에 만연해있던 인종차별과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부 뒤집어쓴 채 방치되어있다. '미친 크레올 여인' 버싸는 갇혀있지만, 고통 받는 남편과 순수한 제인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며, 쏜필드 저택에 불을 지르고 바닥으로 뛰어내려 죽는다. 샬롯 브론테는 사회의 의식에 저항하는 제인을 그려냄과 동시에 사회 의식에 그대로 노출되어 좌절해버린 여성 버싸를 함께 등장시킴으로써 당시의 모순된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인 에어』를 되받아 쓴 진 리스(Jean Rhys, 1894~1979)는 도미니카의 윈드워드(Windward Islands) 군도 중 하나인 로소(Roseau)에서 출생했으며, 16세가 되어 영국으로 건너가 교육받을 때까지 도미니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국 웨일즈 태생의 의사였고, 어머니는 영국계 크레올(creol, criollo,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순수 유럽계통 유럽인과 흑인의 혼혈인, 즉 식민지 태생의 백인)이었다. 그녀는 하얀 피부를 지닌 채 흑인 사이에서 자신의 고향인 도미니카의 흑인 문화와 백인문화 사이의 대조적이고 혼합적인 문화를 체험하며 성장하였다.

> "어린 시절 처음으로 『제인 에어』를 읽었을 때, 나는 왜 브론테가 크레올 여성을 정신이상자로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로체스터의 첫 번째 아내인 버싸를 광녀로 묘사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이야기가 제대로 쓰여진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내가 그 이야기를 쓰기로 했다. 브론테의 소설에서 유령처럼 그려진 버싸에게 나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로 한 것이다." (Harrison, 1988, p. 128)

진 리스는『제인 에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백했다. 그녀는『제인 에어』를 읽고 버싸의 존재에 분노하며 역사의 한 측면의 이야기만을 다룬 이 책의 응답으로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고,『제인 에어』의 후편이 아닌 전편을 쓰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식민지 개척자들의 이주에 의해 추방된 백인 크레올의 관점으로 로체스터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고 그 기저에 깔린 식민주의를 해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9년간의 집필 끝에『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출간하였다.

흑인문화와 백인문화 사이의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성장한 그녀에게『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버싸의 존재는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이다. 리스는 자신도 크레올 어머니를 둔 크레올 여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버싸/앙트와네트(Antoinette)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피부는 백인이었으나 흑인 사회 안에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처럼 소외된 삶을 살았으며, 후에 학업을 위해 영국으로 이주한 이민 작가인 그녀는『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속의 앙트와네트의 삶과 매우 흡사하다. 리스는 이 소설 속에서 크레올 인으로써 겪는 고통과 문제들을 샬롯 브론테의 관점과는 다르게 다루며 자신의 인생도 투영시킨다. 그녀는 버싸가 단순히 제인의 인생에 등장한 어떤 불쌍한 개인 여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유럽의 영국인과 서인도 제도의 크레올이라는 인종적·지역적·정치적인 공간에 놓인 여성으로 인식한 것이다.

샬롯 브론테가 빅토리아 시대의 논리적이고 사실적이며 실용주의에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제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진 리스는 심리적이고 감각적이며 다양하게 화자를 전환하는 구성으로 앙트와네트의 정신세계를 쫓고 있다. 제인과 로체스터가 중산층과 귀족계급의 표준영어를 구사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크리스토핀은 파투아(식민지의 언어와 제국의 언어가 만나서 이룩된 독특한 형태의 방언으로 교육을 통해 배운 표준어가 아닌 영어나 프랑스어를 뜻하며, 주로 식민지의 하층계급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임)로 로체스터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진 리스는 제인의 눈에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존재로 비춰졌던 버싸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원래의 이름까지 되찾아 주고 있다. 또한『제인 에어』에서 버싸가 저지른 광기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사고로만 여겨졌던 쏜필드 저택의 방화와 자살을 억압받는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앙트와네트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종의 저항 방식이었음을 독자들에게 이해시키려 한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의 제목은 '쿨리브리', 앙트와네트가 1인칭 화자로 들려주는 그녀의 유년 시절과 수녀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회상 장면이며, 2부의 제목은 '그랑부아',『제인 에어』의 주인공 로체스터와 상응하는 그녀의 남편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여 자메이카에서 겪었던 앙트와네트와의 결혼생활을 들려준다. 그는 앙트와네트와 결혼

하는 조건으로 지참금 3만 파운드를 챙기고, 더욱 욕심을 부려 그녀를 실성하게 만든 뒤 그녀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3부의 제목은 '쏜필드', 앙트와네트의 관점으로 영국의 쏜필드 저택에 그레이스 풀의 감시를 받으며 감금된 그녀는 감옥과 같은 다락방에서 나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택에 불을 지르며 결말을 맺는다.

이처럼『제인 에어』에서 침묵의 주체이며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고 '다락방의 광녀'로 묘사되는 버싸에게 '삶'을 부여하여 앙트와네트라는 이름으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바로 우리가 진 리스의『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 접근하는 방법인 '되받아쓰기 전략'이다.

2)『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제국주의를 이끌었던 영국인에게는 영국 문화를 표준 규범으로 삼아 식민지의 토종문화를 제거하고 그 위에 영국 문화를 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의 문화는 부정되고 식민지배 아래에 있던 원주민들은 인간 이하의 동물적 수준으로 격하되어 나타나고 있다(김소연, 2004). 이러한 식민지 사정은『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 앙트와네트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1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833년에 영국 정부는 노예를 소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금지시킨다는 노예해방령(Emancipation Act)을 선포하였다.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1834년은 노예가 해방된 이듬해와 일치한다. 서인도 제도에서 흑인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대농장을 중심으로 부를 쌓았던 기존의 백인 세력가들은 노예들이 모두 해방되어 노동력을 상실한 탓에 경제기반을 잃었고, 그들의 부를 지탱해주었던 대부분의 특권 또한 상실하면서 유복했던 크레올 농장주의 계급은 경제적·문화적으로 권리를 빼앗긴 '흰 검둥이'(white nigger)와 '흰 바퀴벌레'(white cockroach)로 추락하였다 (이서형, 1999).

당시 대농장은 피폐해져 가고, 영국 정부는 점차 자유 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인도 제도 보다는 인도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서인도 제도의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반감을 갖게 만든다. 소설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네트는 영국인인 메이슨(Masson)과 결혼하여 식민지 종주국을 향한 신분상승의 기대감과 그가 가져다 준 물질적인 부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한다. 서인도제도에 진출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서인도제도 출신 여성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소유한 농장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과 지참금 덕분에 크레올 여성들은 결혼 후 모든 것을 상실하고 원주민들을 배반했다는 오해를 샀다. 농장의 지주가 된 메이슨은 자메이카의 현실이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말을 말을 잘 듣지 않는 현지의 흑인들을 대신해서 동인도 제도의 날품팔이 인부 '쿨리(Coolies)'들을 노동자로 데려올 계획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흑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두려움에 백인 지주를 향해 분노한다. 아네트는 이런 적대감을 그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무시한다. 결국 분노한 흑인들은 쿨리브리에 불을 놓아 화재를 일으킨다.

식민주의자들은 그들의 눈에 미개하게 비친 원주민들의 관습과 문화를 경멸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문명의 우월함을 자부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향해 바로 그 원시적인 힘으로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같은 잠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김소연, 2004). 이러한 의식 속에서 브론테는『제인 에어』에서 로체스터의 아내 버싸를 영국 여성이 아닌 자메이카의 크레올 여성으로 그렸다. 버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더 가깝게 그려졌으며 영국인이 상상하던 식민지 원주민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3)『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등장인물에 나타나는 저항 담론

(1) 티아(Tia): 앙트와네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앙트와네트의 어린 시절, 유모 크리스토핀(Christophine)의 친구인 메일로트(Maillotte)의 딸 '티아'는 그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친구였다. 그들은 거의 매일 같이 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고, 헤엄을 치며 강에서 놀았다.

> 단 한 번도 티아가 불을 지피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예리하게 모진 돌들도 티아의 맨발을 상처내지 못했다. 티아가 우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Jean Rhys, 2008, p.35)

위와 같은 앙트와네트의 독백처럼, 티아는 자연 세계와 자메이카의 섬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백인사회에도 흑인사회에도 속할 수 없었던 앙트와네트는 티아로 대변되는 흑인 사회에 동화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티아처럼 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둘이 사이 좋게 지내던 어느 날, 크리스토핀으로부터 받은 몇 페니 때문에 둘의 관계는 위기를 맞게 된다. 돈을 탐낸 티아가 앙트와네트에게 물속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앙트와네트가 물구나무를 서는데 실패를 했다고 우기면서 3페니를 가져간다. 이 순간 앙트와네트는 티아를 '속임수쟁이 검둥이 계집애야'라고 욕하며 티아 역시 앙트와네트를 비아냥거리며 욕한다.

> "그래 가져라, 이 속임수쟁이 검둥이 계집애야."
> 나는 지쳐있었고, 물구나무서기를 할 때 삼킨 물 때문에 배가 아픈 것 같았다.
> "원하면 난 또 얻을 수 있거든."
>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너희 집은 거지처럼 가난하다던데. … 자메이카에는 이제 백인들이 아주 많이 살아.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백인

> 이라고 생각해. 금화를 가졌으니까. 진짜 백인들은 너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더라. 그들이 너희 곁에 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던데? 전부터 살던 흰둥이는 이제 흰 검둥이야. 그러니 검은 검둥이가 흰 검둥이보다 훨씬 낫다니까." (Jean Rhys, 2008, p.37)

티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앙트와네트는 백인의 피부색을 지니고는 있으나, 거지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녀의 가족을 자신과 같은 계급으로 전락시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티아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앙트와네트에게 '흰 검둥이'라는 단어로 큰 상처를 주면서 그녀의 사회적 위치를 각성시켜준다. 앙트와네트는 티아와의 우정이 사회 계급적 ·인종적 차이를 초월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티아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 후 분노한 흑인들이 쿨리브리를 방화했을 때, 쿨리브리를 떠나며 마주친 티아를 보고 앙트와네트는 티아가 미웠던 순간보다는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티아를 향해 뛰어간다.

> 티아에게 가까이 갔을 때 나는 티아가 울퉁불퉁한 돌을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티아가 그것을 내게 던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 돌을 맞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단지 뭔가 축축한 것이 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고 생각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티아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마주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서는 피가, 그리고 티아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티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내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거울 속의 나를 내가 보듯이. (Jean Rhys, 2008, p.63)

그러나 위의 독백처럼 티아는 앙트와네트를 향해 돌을 던지며 그녀의 접근을 막는다. 티아가 돌을 던지는 행위는 앙트와네트의 접근을 거부하는 흑인 사회의 상황을 대변한다. 앙트와네트가 거지였기 때문에 같은 계급으로 인정하고 놀아주었던 흑인 소녀 티아는 이제 그녀에게 부자인 양아버지가 생겨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과는 어울릴 수 없는 계급으로 인식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티아의 눈물은 이별의 눈물이고, 앙트와네트의 피는 그녀의 흑인성이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은 상처를 의미한다.

(2) 로체스터의 두 얼굴

『제인 에어』의 남자 주인공인 로체스터는『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2장에 접어들며 등장한다. 리스가 그린 로체스터는 여러 면에서 브론테의 로체스터와 다르다. 브론테는 그를 낭만적이며 카리스마가 있는 사나이로서 깊은 고뇌의 나락까지 체험한 영국신사로 그렸다. 또한 제인의 눈에 비친 그는 변덕스러우나 인생의 깊이를 터득한 전형적인 신사로 나온다. 그러나 리스의

로체스터는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아름다운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앙트와네트를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착취하는 비인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2장을 시작하는 로체스터는 냉소적이며 증오와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는 자메이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 곳의 자연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부한다(이서형, 1998). 그는 자메이카에 오자마자 열병으로 거의 3주를 앓아 눕는다. 축축한 영국 기후와 다른 뜨거운 태양과 무더운 날씨는 앙트와네트의 영역, 즉 여성의 영역이자 이방의 영역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메이카를 거부하고 있으며,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다(김소연, 2004).

> “모든 것이 너무 지나치다. 나는 지친 상태로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세상이 온통 푸르고 온통 보라색이며 온통 초록색 천지이다. 꽃들은 너무 빨갛고 산들은 너무 높으며 언덕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그리고 여인은 이방인이다. 그녀의 변명하는 말투도 귀찮다. 나는 그녀를 사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산 거다. 혹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Jean Rhys, 2008, p.90)

영국적인 정취와 지배문화에 익숙한 로체스터에게 열대의 우거진 나무와 짙푸른 하늘, 새빨간 꽃처럼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자연은 도가 지나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느낀다. 타자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일에 익숙한 그들이 식민지의 사물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눈에 비친 자메이카는 ‘손에 닿지 않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불길한 공간이다. 식민지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자신의 아내 역시 낯설고 적대적인 존재인 것이다(김소연, 2004). 특히 피부는 하얗지만 흑인의 문화대로 살고 있던 앙트와네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다분히 인종차별주의적이다.

> 길게 찢어진 눈, 검은 동자의 눈. 서글픈 이방인의 눈. 그녀가 아무리 영국 순수 혈통의 크레올 이라지만, 크레올을 영국사람이나 유럽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 (Jean Rhys, 2008, pp.87)

로체스터에게 그의 아내와 자메이카는 재산과 관련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영국의 귀족 가문 출신이지만, 장자 상속제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던 차남인 로체스터는 아버지의 일방적인 계획과 바람에 따라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메이슨의 상속녀와 거래의 의미로 결혼을 승낙한 것이다. 그가 아무런 애정 없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원치 않았던 결혼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아버지에게 보내려는 편지에서 드러난다(김소연, 2004).

"아버님 보십시오. 삼만 파운드의 돈이 어떤 질문도 조건도 없이 제게 지불되었습니다. 그녀를 위한 어떤 보호 조건도 만들지 않은 채. 이제 저는 꽤 괜찮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님이나 아버님께서 사랑하시는 형님께 수치스런 인물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교활하고 치사한 전술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영혼을 팔았군요. 아니 아버님께서 파셨다고 해야겠지요. 그 더러운 거래의 이후는 어떻던가요?"(Jean Rhys, 2008, p.90)

모든 것이 매우 선명한 색깔들을 뿜내고 있지만, 내게는 한없이 낯설기만 하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다. 내가 결혼하게 될 이 여인도 내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드디어 그녀와 대면을 하고,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짓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함께 춤도 추었지만, 나는 내가 하기로 되어있는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다. 그녀와 나는 전혀 아무 상관없는 관계이다.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때때로 나는 혹시 누가 나의 연기를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고 궁금해하기도 했다. 나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는데, 그 조용하고 정확하며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곤 했다. 정말 실수 없는 연기를 했음에 틀림없다. 내가 혹 의심과 호기심의 표현을 보았다면 그건 오직 한 명, 검둥이의 얼굴에서였지 백인은 아니었다."(Jean Rhys, 2008, p.99)

그는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 전혀 감정 없이 대한다. 자신의 결혼식을 남의 일을 보듯이 무감각하다. 신부가 될 앙트와네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기대된 대로 예절 바르게 행동했고 낭만적인 청년처럼 행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연기였을 뿐이다. 그의 이러한 아내에 대한 태도는 영국인이 서인도의 식민지인들을 향하여 품는 멸시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정매, 1996). 영국인들은 식민지인 자메이카를 물질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볼 뿐이다. 그는 결혼이 한 생명과의 깊은 결합이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결혼 지참금을 빼앗기 위해 치러야 할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는 완벽한 연기로 그녀와 결혼하여 지참금을 받아낸다. 그는 영국 남자의 아내의 재산은 남편의 소유가 된다는 영국의 법을 이용하여 그녀의 경제력을 장악했고, 재산을 착취한 뒤에는 그녀의 영혼까지 지배하려는 욕망을 보여주면서, 착취와 버림이라는 서구 유럽의 식민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김소연, 2004).

로체스터는 앙트와네트의 이복동생이라는 다니엘(Daniel)의 편지를 받는다. 다니엘은 돈을 얻어낼 목적으로 앙트와네트와 그녀의 가족을 모함하는 음해의 편지를 로체스터에게 보내지만, 다니엘의 목적과는 다르게 로체스터의 인종주의적 태도는 이 편지를 계기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다니엘은 앙트와네트의 남동생은 백치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받은 광기로 죽었고, 앙트와네트가 혼혈인 남자와 연인 사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짓말을 편지로 알린다. 그는 다니엘의 편지에 쓰여있는 거짓말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오히려 음해의 편지를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한다(이서영, 2008).

>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런 편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듯이, 아니 아마 나는 이런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Jean Rhys, 2008, p.128)

그는 편지에 쓰여져 있는 사실들을 앙트와네트를 저버릴 수 있는 빌미로 이용한다. 다니엘의 편지는 로체스터의 의식 속에 각인 되어있던 그녀에 관한 인종주의적 편견과 앙트와네트가 그녀의 어머니와 같은 광기로 물든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선입견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의 역할을 한다.

> “그렇게 웃지 마, 버싸.”
> “내 이름은 버싸가 아닌데, 왜 나를 버싸라고 부르는거에요?”
> “버싸라는 이름이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름이거든. 나는 당신을 버싸라고 생각해.” (Jean Rhys, 2008, pp.172)

로체스터는 앙트와네트를 아네트의 이름인 버싸로 부르기 시작한다. 마치 노예주가 노예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아내의 이름을 고쳐 부른다는 점은 이 자체로 그녀의 정체성을 말살하고(최은영, 2013), 그녀의 존재 가치를 흑인처럼 억압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해, 2003).

후에 그는 앙트와네트 앞에서 다른 흑인 하녀(아멜리)와 정사를 벌여 그녀를 실성하게 만들고, 그녀의 광기를 이유로 쏜필드의 다락방에서 10년 동안 감금시킨다. 로체스터가 앙트와네트를 영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랑부아를 떠나는 제 2부의 마지막 대목에서 그의 계략을 발견할 수 있다(이서영, 2008). 또한 로체스터 안에 내재하고 있던 남성우월주의, 백인우월주의, 삼만 파운드에 영혼을 팔았다는 강박관념, 가부장적 사고방식, 제국주의, 이 모든 것이 이들이 그랑부아섬을 떠나는 순간 폭발하여 신혼 여행지인 그랑부아섬을 증오한다는 말을 남긴다. 앙트와네트의 자유로운 영혼을 대변하고 있는 자연과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들에 두려움을 느끼는 로체스터는 지배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났을 때 감정 대처방안으로 두려움과 증오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 “나는 산들도 언덕들도 강들도 비도 증오하고, 그 색깔이 무엇이든간에, 황혼도 증오한다. 나는 이 곳의 아름다움도 마력도 그리고 내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비밀도 증오한다. 나는 이 곳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속에 내재한 무관심도 잔인성도 증오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여자를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마력과 아름다움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목마른 상태로

> 남겨 놓았다. 내 모든 인생은 발견하기도 전에 이미 상실한 것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녀가 단지 피해야 하고 가두어버려야 하는 하나의 기억이 될 때까지 그리하여 모든 기억들처럼 결국 전설이 될 때까지, 혹은 거짓말로 치부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Jean Rhys, 2008, pp.192)

(3) 크리스토핀의 강력한 저항담론

리스는 제국주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로체스터와 대조를 이루는 인물로 앙트와네트의 유모이자 흑인 여성인 크리스토핀을 내세우고 있다. 그녀는 원래 앙트와네트의 어머니인 아네트의 결혼선물 중 하나로, 그녀는 노예해방령 이전에도 마르트니크의 노예였으며, 오베아(obeah)라는 토속신앙을 숭배하는 여성 주술사이며 최하위 계급의 신분이다. 따라서 그녀는 19세기 자메이카의 인종적이며 정치적인 불평등을 타파할 만큼의 권력이나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그녀는 보통 흑인보다 더 검은 '푸른빛이 도는 검은 피부색'을 가지고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와 독립심, 자립능력을 가진 당당한 여성이다. 앙트와네트가 결혼과 함께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넘겨져 한 푼도 없는 상황, 남편인 로체스터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조언을 구하러 왔을 때 "짐을 싸서 떠나세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하느님께 정말 감사해야지. 내 돈은 내가 챙겨요. 나는 내 돈을 쓸모 없는 남자에게 절대 주지 않지요(Jean Rhys, 2008, p. 140)."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당시의 지배적인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날카로운 조언도 할 줄 알며, 남편이 없이도 정신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히 지닌 여성이다.

크리스토핀은 식민주의자이며 인종차별주의자인 로체스터에 대항하는 식민지 원주민들의 저항담론을 재치 있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통찰력과 직감력으로 로체스터가 앙트와네트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을 꿰뚫어보고 앙트와네트를 보호하고자 한다.

> "아가씨는 크레올 여인이랍니다. 그녀는 몸 속에 태양을 품고 있어요. 이제 사실대로 말해봅시다. 아가씨가 그 영국이라는 곳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당신의 집까지 가서 결혼해 달라고 간청한 것은 아니지요. 그 먼 거리를 찾아 아가씨의 집까지 온 사람은 다름아닌 당신이에요. 아가씨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한 사람도 당신이에요. 아가씨는 당신을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하지 않으니 파멸시키겠다고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가 '돈'이라는 말을 뱉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쇳소리가 났다. (Jean Rhys, 2008, p.201)

크리스토핀은 로체스터의 비열한 행동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인 분석으로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는 앙트와네트를 완벽하게 대신하고 있다(김소연, 2004).

> “리처드 메이슨이 어째서 오빠가 됩니까? 나를 바보 취급 하시는 군요. 아가씨의 돈은 좋지만 아가씨 자체는 싫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마음속에서는 아가씨를 미친 사람으로 못 박았군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 아아! 불쌍한 것! 제 어머니처럼 되겠구나!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하십니까? 정말 사탄 그 자체처럼 사악한 사람이군요.” (Jean Rhys, 2008, pp.205)

로체스터는 멀쩡한 앙트와네트를 실성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인 크리스토핀에게 당신을 경찰에 넘기겠다 협박하며 떠나라고 종용한다. 평소 파투아를 사용하여 말을 하던 크리스토핀은 이 대화만큼은 로체스터의 언어 즉, 지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지배자의 언어로 지배자에게 욕과 비판을 서슴지 않는 그녀를 보며 로체스터는 그녀와 나눈 대화에서 모든 것을 들킨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 크리스토핀은 로체스터의 본심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까지도 들여다 본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위협하고 자신의 위험한 진실을 알고 있는 크리스토핀을 떼어 내는 것, 그것은 식민 지배자가 정복을 마무리 짓기 위해 투쟁자들을 처단하는 것과 비슷한 형상이다. 그녀가 로체스터를 상대로 앙트와네트를 향한 부당한 억압과 착취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녀가 지식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로체스터가 열등한 인종으로 폄하한 흑인여성이 앙트와네트를 정당하게 대변해주고 자신의 의중까지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닌 지식인으로 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백인 남성 우월주의 가치관을 가장 강력하게 전복시키는 전략이 된다(김소연, 2004).

(4) 앙트와네트: 크레올 여성과 탈식민주의 저항 담론

『제인 에어』의 버싸가 미친 여자로 묘사되고, 희생되어야 했던 이유를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앙트와네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김소연, 2004). 앙트와네트의 어머니는 다른 크레올 여성들에 비해 너무 아름다워 자메이카 여성들의 질투를 샀고, 백인들은 위기가 닥치자 결속을 강화했지만 피부색이 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네트와 앙트와네트는 그 사이에 끼지 못했다는 내용이 소설의 처음 부분부터 등장한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가 프랑스령이었던 마르트니크 섬 출신이었기 때문에 경제·정치·문화·종교 면에서 경쟁적 위치에 있었던 영국령 자메이카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느꼈던 배타적인 감정들은 어린 아이인 앙트와네트가 타문화 출신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불평등한 차별의식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선입견은 노예해방 이후 모호해진 크레올 여성의 위치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 그녀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물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김소연, 2004),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그 노래가 흰 바퀴벌레에 관한 거에요. 나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 곳 사람들이 대농장을 경영하던 우리 백인 모두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 영국 여자들이 우리를 백색 검둥이라고 부르는 것도 들어왔어요. 그러니 당신들과 이 곳 유색인종들 사이에서 나는 내가 누구며, 어디가 내 나라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왜 태어난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아요." (Jean Rhys, 2008, p.132)

앙트와네트에게는 여러 억압 세력이 영향을 미친다. 양아버지와 남편의 가부장제의 그늘과 서인도 제도 출신 크레올 여성을 향한 제국주의자들의 편견, 그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재산과 얽힌 자본주의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다. 앙트와네트는 양아버지 메이슨의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로체스터와 정략결혼을 하게 되며 아버지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남편이라는 또 다른 가부장제 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식민지 출신의 아내를 맞이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로체스터는 그녀에게 냉혹하게 대한다. 그녀는 크리스토핀의 도움까지 빌려 그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만 겪는다. 이는 피식민지 국가의 문화가 제국주의 지배 문화에 의해 심하게 영향 받고 압도당해 그 정체성을 상실당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녀가 영국에 관하여 받은 교육의 대부분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녀가 습득한 영국에 대한 지식(영국적 가치관·이데올로기·그들의 우월감)을 아름답게 포장한 텍스트는 유럽중심으로 조작된 거짓일 뿐이다(이서형, 1998).

> "영국이라? 지리 교과서에 실린 지도는 장밋빛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반대쪽 페이지는 엄청나 보이는 단어들로 조밀하게 꽉 차 있지. … 여름이 가면 나무들은 헐벗고 이내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린다고 했지. 흰색 새털이 떨어지는 건가? … 영국에 대해서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어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추워 떨게 될 그 집을, 그러나 나를 식구로 받아주지 않을 그 집을 알고 있고, 내 꿈의 마지막 대목을 꾸게 될 그 침대를 알고 있거든. 아니야. 내 꿈과 영국은 아무 상관이 없을 거야…." (Jean Rhys, 2008, p.142)

앙트와네트가 상상한 영국은 제국주의자들이 심어 놓은 제국주의의 환상이다(김소연, 2004). 그녀는 상상 속의 '고향'인 영국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그녀를 맞이한 영국은 냉정함과 우월감을 과시하는 곳일 뿐, 자신이 배우고 상상했던 영국은 허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앙트와네트는 작품 전체에 걸쳐 세 번의 의미 있는 꿈을 꾼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꿈은 앙트와네트가 자신이 갇혀 있었던 쏜필드에 불을 지르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붕에서 뛰어내린다는 내용이다. 이 꿈은『제인 에어』의 마지막 부분, 버싸가 불을 지르고 남편 로체스터의 눈과 한쪽 팔을 잃게 하는 장면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리스는 이 작품에서 그녀에게 씌워져 있던 '다락방에 갇힌 광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온전한 앙트와네트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표출시킨다. 뛰어내리는 순간, 그녀는 좌절과 고통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서인도 제도의 자연과 그 곳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최은영, 2013). 자신이 속해 있었고 앞으로도 속해 있고 싶은 곳, 고향 자메이카로 돌아가겠다는 강한 열망을 통해 남성이 부여한 자아를 거부하고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찾으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그러나 곧 방을 나왔다. 바로 그 때, 내가 그 여인을 본 것이다. 그 유령 여인을. 유령 여인은 금칠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여인인 누구인지 안다. … 내가 뛰었는지 둥둥 떠갔는지 아니면 날아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와줘요, 크리스토핀'하고 외쳤고, 뒤를 돌아보니 나는 크리스토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불로 된 벽이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찌나 뜨거운지 불은 나를 태울 것 같았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왔다. (Jean Rhys, 2008, p.237)

앙트와네트가 감금되어있던 방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그녀가 떠올리는 것은 로체스터에게 맞서 저항했던 크리스토핀이다. 크리스토핀의 저항정신은 자유를 향한 그녀에게 로체스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은영, 2013).

> 나를 증오하는 사나이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버싸! 버싸! 바람이 내 머리에 닿으니 머리칼은 마치 날개처럼 물결치며 펄럭였다. 내가 만일 저 아래 단단한 돌 바닥으로 뛰어내리면 내 머리칼이 날개가 되어 나를 둥둥 뜨게 하겠지. 나는 생각했다. (Jean Rhys, 2008, p.238)

자신을 가두고 있던 쏜필드에 불을 지르고 뛰어내리려는 순간 앙트와네트는 머리칼이 날개처럼 휘날린 것으로 느끼며, 자신이 고향을 찾아 비상하는 새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것은『제인 에어』에서 자살하는 버싸의 모습을 처참하게 묘사한 것과는 매우 상반된다. 그녀의 자살이 패배와 좌절의 죽음이 아닌 반항이자 보복, 해방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이제 드디어 나는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알았다. (Jean Rhys, 2008, p.239)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안다’라는 문장은 더 이상 버싸가 해야 하는 역할은 식민지 여성의 역할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제 앙트와네트는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했던 불분명한 정체성을 지닌 억압받던 타자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세상에 저항하여 중심의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자신의 역사를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주인 여성인 것이다(이서영, 2008).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에서는『제인 에어』에서와는 달리 앙트와네트/버싸의 죽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꿈 속에서 앙트와네트가 티아를 부르며 뛰어내리는 장면만을 암시적으로 그려놓을 뿐이다. 이렇게 열린 결말을 두어 독자가 다양한 해석을 하게 함으로서 앙트와네트의 광기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 반란과 해방의 시작이 되며 억압 없는 지역을 향한 비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사르가소 바다: 제목의 상징성

사르가소 바다는 북대서양 서인도 제도 앞바다를 말한다. 지도에서 살펴보면 유럽과 카리브해 사이, 즉 백인 국가와 흑인 국가 사이에 있는 바다이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메이카와 영국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두 장소 사이에 존재하지만 결코 어느 지역에도 속할 수 없는 이 바다는 해양 순환의 중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흐름이 거의 없어 두 지역 사이에서 표류하며, 어디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고(흑인/백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자메이카/영국) 앙트와네트의 현실을 상징한다(배지예, 2013).

또한 사르가소 바다는 해초인 모자반류가 해면을 덮고 있으며 해조가 배에 잘 달라붙어서 항해하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며, 뱃사람들은 이 곳을 항해할 때 배가 이곳에 묶여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로체스터가 영국에서 출발하여 자메이카에 당도했을 때 느꼈던 자연에 대한 공포, 앙트와네트에 대해서 느끼던 알 수 없는 공포와도 같다. 특히 ‘wide, 광막한, 광활한’이라는 표현은 앙트와네트가 주변적인 존재로 머물기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임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사르가소 바다는 세계의 바다 중 가장 투명하여 투명도의 최대값이 66.5m나 된다(두산백과, n.d). 이것 또한 앙트와네트의 순수성과 그 이면에 있는 깊은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르가소 바다는 이 작품 속에서 다락방의 미친 광녀의 과거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와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육 과정에서 문학작품을 통한 문화 교육을 위하여

탈식민주의를 담고 있는 작품 진 리스의『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를 등장인물 중심의 분석을 통해 문학작품 속의 식민 담론을 밝혀내고 그것을 되받아 쓰는 탈식민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의 등장인물인 티아, 로체스터, 크리스토핀, 앙트와네트의 대사, 현실묘사, 생각을 통하여 탈식민주의란 무엇인지, 어떻게 탈식민주의가 작품 안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읽고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현재 30대 이하의 한국사람들은- 특히 조부모 세대에게서 조차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간접경험을 하지 못한 10대 20대 학생들은- 식민지를 경험해 본적도 없고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적도 없는 세대이다. 이러한 우리 세대가 19세기 영국이 식민 국가를 건설하고, 제국주의를 널리 퍼뜨리고, 식민지에서 부(富)를 축적하여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과 그 속에 담겨있는 사상들을 이해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에 관한 소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19세기 영국 소설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 샬롯 브론테의『제인 에어』에서 조차도 제국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소설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제인의 입장에서 책을 읽으며 '다락방의 미친 여자는 누구일까? 왜 미쳤을까?'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다만 묘사된 글만 받아들여 '원래 저렇구나. 제인의 사랑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채로 영문학을 학습하는 사이 우리는 자연스레 작가가 살던 시대의 시대상 또한 학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비록 소설에서 제국주의/식민주의를 암시하는 소재들은 미미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작품의 중심적인 구조를 이루며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인도제도 출신의 작가인 진 리스는 샬롯 브론테가 '제인'을 자의식이 강한 영국숙녀로 그리기 위해 크레올인 '버싸'를 다락방에 갇힌 미친 짐승과 같은 존재로 형상화 한 것에 반발하였다. 그리고 버싸를 앙트와네트라는 크레올 여성으로 탈바꿈시켜 영국 쏜필드의 다락방이 아닌 자메이카라는 공간에 재배치시킴으로써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던 버싸에게 목소리를 찾아 주었다. 진 리스는 샬롯 브론테의 작품에서 힘없이 죽어간 버싸에게 그녀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목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메이카에서 4년 동안 로체스터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제인 에어』에서 숨겨졌던 영국 제국주의의 원주민을 향한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착취를 구체화하는 한편 크레올을 규정하던 서구의 허구로부터 벗어나 독립적 주체로써 스스로를 재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진 리스는 앙트와네트라는 개인의 주체성 상실의 원인을 제국주의라는 역사적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 분석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에 저항하는 앙트와네트의 비극을 성공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새로운 인식의 전환, 즉 탈중심화 된 세상에서 '나' 이외에 '너'의 공존을 허용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작품을 소화하고 난 후 교과서의 소재 틀 안에서 혹은 틀에서 벗어나서, 영문학 작품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수·학습할 때, 교사에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배경을 구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교사의 세심한 관찰력과 정보력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학생들은 훨씬 더 풍요로운 내용을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더욱 넓은 포용력을 가진 인재로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4)

강용구, 김종선. (2004). 영어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지도. *한국영어어문교육*. 9(2), 71-90.

고부응. (2005). 탈식민주의 이론과 영문학 교육. *영미문학교육*, 9(2), 27-45.

김소연. (2004).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와 탈식민주의적 저항 담론-「제인 에어」와 「드넓은 사가소 바다」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김정매. (1996). 해체적 글쓰기: 진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비교연구. *영미문학 페미니즘*(3), 7-34.

김정해. (2003). Jean Rhys의 Wide Sargasso Sea에 나타난 타자들의 저항.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두산백과. (n.d.) *사르가소해*. 2014년 9월 4일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163&cid=40942&categoryId=33222.

배지예. (2013). 크레올인과 인도계 영국인의 몸으로 말하기: 진 리스의 「광활한 사가소 바다」와 살만 루시디의 「악마의 시」 비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염부섭. (1999). Jean Rhys의 Voyage in the Dark와 Wide Sargasso Sea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윤교찬, 이동배. (2011). 탈식민주의, 세계화, 비판저 영어교육. *현대영어영문학*. 55(2), 115-135.

이서영. (2008). 「제인 에어」와 「드넓은 사가소 바다」 비교연구 – 브론테의 식민의식과 리스의 '되받아쓰기'.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이서형. (1999). 「제인 에어」와 「드넓은 사가소 바다」 연구 – 포스트 식민주의적 접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진 리스. (2008).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 윤정길 옮김. 펭귄클래식.

최은영. (2013). 「제인 에어」와 「드넓은 사가소 바다」 비교연구 – 주인공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한호, 김현옥. (2007). 영미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영어어문*

교육. 13(4), 271-292.
Bill, A., Greth, G., & Helen, T. (1989). *The Empire Writes Back*.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ronte, C. (2001). *Jane Eyre*. (Richard J. 3th Ed.) New York: Norton.
Harrison, N. (1988). *Jean Rhys and the Novel as Women's Tex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Rhys, J. (1992). *Wide Sargasso Sea*. New York: W.W. Norton.
Said, E. (1978).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이현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90
Email: saddysebi@nate.com

강문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90
Email: kangmunkoo@hanmail.net

Received in July 15th, 2014
Reviewed in August 26th,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September 5th, 2014